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유근택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 작품연구논문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09

성신여자대학교 아트 디자인 대학원  
조형예술 동양화과 전공  
이영빈

#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유근택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아트 디자인 대학원

조형예술 동양화과 전공

이영빈

# 인 준 서

이영빈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는 본인의 창작활동이 삶과 관계되어지는 지점에 대한 연구과정으로 구성 하였다. 작업에 몰입하다가 보면 가끔은 왜 작업을 하는지 작업이 삶에 어떠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 자문해보게 된다. 이 글은 이러한 의문에 대한 자답이다. 본인에게 그림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고 또한 인간과 삶에 대한 고민이다.

때문에 그동안의 작업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것은 스스로의 삶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이고 나아가 인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다. 작품 안에서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 위하여 작품 밖에서의 삶의 모습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이것은 작품이 삶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그 삶은 그저 한 인간으로 보편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모습은 '목적감', '의미감', '능력감'으로 충만된 삶과 밀착되어진 모습이기도 하고,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 느끼는 실존적 고독에 모습이기도 하고, 좌절, 실패, 죽음... 그 많은 '비존재'를 겪는 모습이기도 하다. 하지만 좌절이나 실패는 성공에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비극은 '비존재'한다. 이것은 본인이 인식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인 동시에 스스로의 모습이다. 따라서 그림에 나타난 조형적 표현 형식에 대하여 생각해본 결과를 토대로 하여, 행위에 내재적 의미와 무의식이 조형적 형식으로 어떻게 표현되어 나타났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작품 안에 그려진 모습과 작품 밖에 인간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삶과 본인의 작업에서 의미를 생각해보고 삶의 방향과 본인의 작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도움이 되고자 한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II. 안에서의 가치와 의미 .....	3
1. 내재적 목적 .....	3
2. 절정경험 .....	4
3. 자아의식 .....	5
III. 조형적 형식에 나타난 무의식적 의미 .....	7
1. 씻음 .....	7
2. 내부공간과 부감시점 .....	8
3. 벗음 .....	9
IV. 작품설명 .....	10
V. 결론 .....	23

## 참고문헌

## ABSTRACT

## 작 품 목 차

【작품 1】 자화상, 장지에 분채, 52cm×32cm, 2000 .....	13
【작품 2】 파도야 너는 아느냐, 한지에 분채, 180cm×180cm, 2003 .....	14
【작품 3】 여탕, 장지에 혼합재료, 130cm×162cm, 2002 .....	15
【작품 4】 3-b, 장지에 혼합재료, 130cm×162cm, 2002 .....	15
【작품 5】 탕, 순지에 혼합재료, 180cm×180cm, 2004 .....	16
【작품 6】 뜰, 순지에 혼합재료, 180cm×180cm, 2004 .....	16
【작품7】 나의 나면의 자화상, 순지에 주먹, 162cm×130cm, 2006 (왼쪽) .....	17
【작품8】 어디인지 모르게,,, 순지에 주먹, 162cm×130cm, 2006 (오른쪽) .....	17
【작품9】 드로잉, 갱지에 혼합재료, 27cm×21cm, 2007 .....	18
【작품10】 탕, 장지에 혼합재료, 130cm×162cm, 2007 .....	19
【작품11】 탕, 장지에 혼합재료, 130cm×162cm, 2007 .....	19
【작품12】 여인숙, 장지에 혼합재료, 130cm×162cm, 2007 .....	20
【작품13】 무용3, 장지에 혼합재료, 130cm×162cm, 2007 .....	20
【작품14】 어제는, 장지에 혼합재료,130cm×162cm, 2007 .....	21
【작품15】 탕, 장지에 혼합재료,110cm×90cm, 2007 .....	21
【작품16】 탕, 장지에 혼합재료,1230cm×90cm, 2007 .....	22

# I. 서론

그림을 그리는 일을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적지 않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고민해보게 된다. 때때로 무엇 때문에 그동안 그림을 그렸는지,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또한 앞으로의 인생에 얼마만큼의 행복을 가져다주는지, 또는 다른 사람 삶에 어떤 작은 의미라도 되어 지는지, 답을 얻고 싶을 때가 있다. 소중한 인생, 소중한 삶을 한심하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소중한 그 무엇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때때로 조바심이 생기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삶에, 시간에, 자신에 대해 예민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작업경험과 나아갈 긍정적 방향에 대해 고민 해보고자 한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최고봉에 잊지 못할 기억들이 있는데 우선 시기적으로 최초에 경험은 어릴적에 추석날에 추석음식을 준비하는 즐거운 모습을 그린 경험이다. 마당에서 부침개를 후라이팬에 부치고 아기자기하게 맛있는 음식들이 만들어지는 모습이 내게 즐거웠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고 엄마한테 보여주었는데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흐뭇하게 바라보는 엄마를 보고 스스로가 꽤 가치 있는 인간으로써 느껴졌고 그 그림 또한 가치 있는 것으로 느껴졌다. 생활 속에서 재밌게 느낀 장면을 재미있고 즐겁게 그려서 그것이 재밌는 작품이 되었던 것 같다. 그 그림을 그리는 순간에는 다른 목적이 없고 그 자체에서 즐거움이 있었던 경험이다. 그림이라는 것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대단한 발전적 성과 가치가 있기 보다는 이런 내재적인 즐거움이나 그런 즐거움이 전달 되는 것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본인에게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그 어떤 이상적 세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의 소중함과 진지함을 느끼고 표현 한다.

또 하나의 그림에 대한 인식은 인내나 도전, 또는 수양의 과정의 의미 이다.

그림을 그리는 행위가 본인의 한계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이고 치유의 과정이다. 삶에는 극복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 하는데 이러한 크고 작은 내면에서의 문제들을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통해 치유되어진다. 내면의 자화상을 표현함으로써 속하여져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표현함으로써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공유 되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의식, 태도가 조형적 형식으로 어떻게 표현 되었는지, '밖'으로의 관심과 '안'으로의 관심을 아우르는 자세를 가지고 작업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 Ⅱ . 안에서 의 가치와 의미

### 1. 내재적 목적

‘일’이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가장 널리 쓰이는 일(work)의 의미는 사람이 체력을 소모하여 하는 모든 활동 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일(日)의 의미는 하루 동안의 의미로 쓰이고, 또 다른 일(一)의 의미로는 수사의 그 순서가 첫 번째임을 나타내는 자연수의 맨 처음 수로 쓴다. 이렇게 우리는 어떤 일(work)을 하며 일(日)을 보낸다. 본인은 많은 시간을 그림과 관련된 일과를 보낸다. 다른 사람의 작업도 이것저것 보러 다닌다. 그래서 가끔은 다른 사람에게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왜 그런 그림을 그리느냐?” 라는 얘기를 듣는다. 그래서 가끔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지 고민에 빠진다. 대개는 사회에 어떤 효용성 있는 대답을 기대한다. 하지만 그것은 본인에게 있어서 정답은 아니다. 그것에 대한 본인의 대답은 “재밌어서 그런다, 왜!”이다.

칸트(Immanuel Kant, 1724~1804)<sup>1)</sup>는 “인간을 수단으로서만 사용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라”고 말했다. 위에서 ‘목적’은 인간 자체로서의 목적, 그 본연이 지닌 가치를 말하며 인간은 모든 인간 활동에 적용시켜 볼 수 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 내재적 가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가치가 존재 하고 때로는 수단적 가치가 중요할 때도 있겠지만 수단적 가치나 다른 어떤 것을 위하기보다는 그것 자체로서의 의미를 갖고자 한다.

인생을 어떤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듯이, 그림이라는 효용성 없는

---

1) 독일이 낳은 세계적인 철학자이다. 그의 주요 저서로는 이른바 3대 비판서라 불리는 [순수 이성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학으로서 등장할 미래의 모든 형이상학에 대한 서론], [도덕의 형이상학]등이 있다.

매체로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사회적 효용성 결과 이전에 그림을 그리는 순간 마음이 평온하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의 열정이 담겨있는 그림을 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고, 가끔은 스스로의 창조물을 보고 가끔은 깜짝 놀랄 기쁨을 느끼기 때문이다. 자신을 씻는 일이고 내면을 치유하는 일이다. 그것이 스스로를 납득시키는 방법이고 세상을 아름답게 느끼는 방법이다.

## 2. 절정경험

그림을 그릴 때 가끔 그날 밥을 몇 번을 먹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할 때 가 있다. 전적으로 주의집중 했던 경험이다. 그것은 가장 깊게 전심, 몰두, 몰입했던 일들의 추억이기도 하다. 그것은 그 사람 나름으로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는 아주 강렬한 행복, 환희, 황홀의 경험들, 아주 큰 감격, 감동, 경탄의 순간들, 아주 희한한 창의, 돈오, 대오각성의 경험들을 담고 있는 경험의 기억속의 고봉들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매스로(Abraham H. Maslow, 1908~1970)<sup>2)</sup>는 이러한 인간의 크고 작은 경험들, 지평선상에 몇 개의 우뚝 솟아 있는 산봉우리와 같은 감격적인 사건의 기억들의 경험을 절정경험 이라고 부른다.<sup>3)</sup>

절정경험의 사례는 다른 사람의 사소한 모습에서도 간접적 경험을 할 수 있다. 시장에서 연시감을 짹짹 운이 나게 정성스레 닦아놓는 모습에서, 딸기잼을 만드는 할머니, 자신의 텃밭에서 야채를 돌보고 키우는 모습, 그곳에서 햇볕을 충분히 받고 천천히 자라나는 그 생명체에서도,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의 모습에서도 어린아이가 혼자서 재밌게 놀고 있는 모습에서도, 또한 대중목욕탕에서 벗가 벗고 타인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을 깨끗이 씻어내는 모습에서도 있을

---

2) 인본주의 심리학의 창설을 주도하였으며,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에서부터 사랑, 존중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기실현에 이르기까지 충족되어야 할 욕구에 위계가 있다는 욕구 5단계설을 주장하였다.

3) A. W. Maslow, *Toward a Psychology of Being* (N.Y.;Van Nostrand, 1962)

수 있다. 세상 속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감동에 순간들이다. 이러한 시간에는 불안, 고독, 무의미 등 '없다'는 없다. 그런 삶의 장면, 삶의 순간에는 진실 된 삶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가치지향 없는 어떤 광기, 광란 속에 매혹되어 있음도 아니고, 또 한편 매혹 없이 '건성' 관여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다. 그것은 도박이나 마약에 빠져 있는 것과는 다르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모습이나 공장에서 생산되는 그 어떤 것과는 다르다. 공장에 노동자들은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일한다. 때문에 노동이 그자체로서 즐겁고 재미있는 일이 아니라 싫어해도 해야 하는 의무가 되어 '일'의 즐거움에서 소외된다. 자기 자신이 주체가 아닌 기계 속 리듬에 맞추어 따라 간다. 집단적 황동이나 집단에 의지하기 보다는 자기 자신이 그 행동의 주체이다. 누군가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움직이는 것이다. 기준이나 가치를 외부에 두지 않는다. 스스로가 생각해서 내 것으로 설정한 '나'의 방향에 따라 행동한다. 소속된 공동체와 그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그 모태에서 나온 개체적인 자아로 인식하고 행동한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에 결정은 자신 스스로에게 있기 때문에 그 책임 또한 나에게 있고 남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는 인식, 궁극적으로 나 자신 의외에는 달리 아무에게도 의지할 곳이 없다는 인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힘이며 그 힘으로 최고, 최선을 다 하려 한다.

### 3. 자아의식

인간은 '나' 자아라는 존재를 의식한다. 데카르트(Rene Descartes, 1596~1650) 4)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했다. '나'라는 존재에 관한 의식

---

4) 프랑스의 철학자, 수학자, 물리학자. 근대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데카르트의 형이상학적 사색은 방법적 회의에서 출발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방법

이 있기에 생각의 주체가 된다.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의식이다. 이러한 의식은 아주 어릴 적부터 생기고 생각해야만 하는 일에 부딪친다. 과자를 무엇을 먹는게 좋을지 누구와 친구를 하는 것이 좋을지 부터 어느 대학 무슨 과를 갈지 어떤 직업을 선택 할지가 그 예이다. 그것은 인간이 속해있는 전체 속에서의 개체로서의 의식이고 우리 속에서 나에 대한 인식이다. 이렇듯 인간은 어떤 전체, 어떤 집단의 일부 이면서도 일부만이 아닌 자기 혼자를 의식한다. 어떤 집단에 의지하고 집단에 따라 행동하면 어떤 잘못이나 책임을 회피할 수는 있어도 나의 자유는 없는 것이다. 에디슨(Thomas Alva Edison, 1847~1931)<sup>5)</sup>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실패와 좌절에 대한 용감함이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다. 인간은 가능성의 존재로 성공의 가능성은 실패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러한 실패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은 성공의 가능성을 포기 하는 것이다. 물론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다. 어떻게 하든지 인간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리고 그것은 한 인간이 인간으로써 살고 있는 인격체, 존중받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고귀한 가치의 필연적인 책임인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동물에게도 있다고 생각한다. 먹이를 찾기 위해서 이리로 갈 것이냐 저리로 갈 것이냐, 잘못하면 '없다' 죽음을 당한다. 이러한 자아의식, 성숙한 자아의식의 성장으로 고귀한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라고 생각한다.

---

사실 확립

5) 미국의 발명가이다. 인쇄 전신기, 전화기, 백열 전등, 자력 선광법, 알칼리 축전지, 축음기, 영화 촬영기 따위를 발명하였다. 1,300가지가 넘는 특허를 얻어 발명왕이라 불린다.

### Ⅲ. 조형적 형식에 나타난 무의식적 의미

#### 1. 씻음

실존주의<sup>6)</sup>에 '무', '없다'라는 개념이 있다. '유', '있다'가 있는 훌륭한 삶의 과정에 언제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있을 수 있는 극복해야 할 '비존재'를 말한다. 삶에서의 실패, 실연, 실직, 실추, 실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실명에 이르기까지 인간에게는 씻어야 할 것 우리가 흔히 바라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모든 것을 말한다. 삶은 마냥 행복과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삶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좌절, 실패, 고독, 불안, 고통, 비애, 등을 말한다.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 현실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해 내는 것. 물론 그것은 미완성된 주관적 해석이지만 그것을 용감하게 표현하는 것. 그것에서 삶을 인정하는 것 바라보는 것. '없다'를 극복하는 것. 말로는 표현 못하는 좌절, 아픔을 치유하는 것.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 384~322)<sup>7)</sup>는 인간에게는 씻어야 할 것들이 존재한다. 라고 말했다. 나에게 씻는 것은 많은 것들이 포함된다. 불안, 고독, 좌절, 상처, 아픔을 씻는 것과 함께 순수하지 못한 마음을 씻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지나친 욕심이 있고 어리석은 계산이 있고 폭력적인 모습이 있다. 그것이 인간조건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씻어내었으면 한다.

노자(老子, ?~?)<sup>8)</sup>는 그의 《도덕경》의 한 곳에서 天地不仁(천지불인), 즉 하늘

6) 20세기 전반(前半)에 합리주의와 실증주의 사상에 대한 반동으로서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철학 사상.

7)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제자이다. 플라톤이 초감각적인 이데아의 세계를 존중한 것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에게 가까운, 감각되는 자연물을 존중하고 이를 지배하는 원인들의 인식을 구하는 현실주의 입장을 취하였다.

8) 老子(?~?) 중국 고대의 철학자, 도가(道家)의 창시자. 주나라의 쇠퇴를 한탄하고 은

은 인정이 없고 말했다. 하늘은 그저 제길 따라 돌아가는 것이지, 사람이 의지하고 기도 하고 애원한다고 해서 특별히 '봐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 아무리 천지신명에게 빌어도, 천지란 그저 그렇게 무정, 무심한 것임을 알고 인간 스스로 최선을 다하라는 뜻으로 해석 된다. 이러한 사고를 바탕으로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은 목욕탕이라는 낯선 공간에 타인들 속에서 알몸으로 씻는 행위의 의미를 설명하기에 충분한 이유는 되지 않지만 용기를 내어 목욕탕에서 깨끗이 씻고 나오는 것이 나에게 특별한 경험과 의미로 다가왔던 것 같다. 본인은 인간의 작은 모습을 사랑한다.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이다. 여인은 자신임인 동시에 작고 초라한, 또는 외로운 인간이다. 또한 오롯한 하나의 그 삶에 주체적 인간이다.

## 2. 내부공간과 부감시점

자아와 자아 사이에 거리를 두고 보기이다. 내면을 똑바로 바라보는 일이다. 거리를 두고 내부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일이다. 내면에 대한 관심이며 개인공간을 드러내는 일이다. 자아와 타아와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다.

존중은 중요한 개념이다.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다. 작고 힘이 없는 병아리를 하나의 동등한 인격체로 보는 것이다. 자신은 병아리를 하나의 인격체로 본다. 아주 동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슷한 그래서 비슷비슷하게 비슷한 거리를 두고 본다. 일관적인 가치, 시각 원근법에 시각이 아닌 스스로의 시각이다. 스스로의 해석이며 좌도 승리하고 우도 승리하는 다양한 가치관의 존중에 대한 표현이다. 인간의 본질과 관계 같은 것들에 대한 고민이다.

---

퇴할 것을 결심한 후 서방(西方)으로 떠났다. 그 도중 관문지기의 요청으로 상하 2편의 책을 써 주었다고 한다. 이것을 《노자》라고 하며 《도덕경(道德經)》이라고도 하는데, 도가사상의 효시로 일컬어진다.

### 3. 벗음

그림을 그리는 일, 즉 드로잉은 자신의 정서나 감정, 즉 몸을 온몸으로 드러내는 일이다. 옷을 입지 않은 즉흥적이고 날것의 내적 표출이다. 차갑게 식기 이전에 뜨거운 것이고, 솔직한 것이고, 수수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일 같은 것이다. 또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니체<sup>9)</sup>의 유명한 말 ‘신은 죽었다’는 단순히 기독교의 지배적인 세계관을 비판한 것 뿐 만아니라 지배적이고 관습적인 모든 것에 대한 반격이다. 영속적이거나 지배적인 형식은 없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영속적인 형식을 확립하기 보다는 알몸과 같은 마음으로 생성의 흐름 속에 놓여 저있는 세계를 본인의 인식체계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합당한 언어를 확장 하고자 한다. 세계를 외부에 방법론을 벗고 자신의 규칙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 외부의 가치관이 아닌 자신의 인식체계로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적인 삶에 기본 조건이다. 진리에 대하여 항상 의문시하고 가치와 의미를 찾아가고자 함이며, 가치판단 기준을 현명히 매번 새롭게 하여 관습적으로 무심히 살지 말고자 함이며, 세상 밖이 아닌 속에 있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자 함이며, 그것을 느끼고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다양한 존재의 경계사이를 오고 가며 스스로 깨닫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본인의 의지나 무의식이 발가벗은 인체를 즉흥적으로 드로잉 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

9) Friedrich Wilhelm Nietzsche(1844~1900) 독일의 시인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의지 철학을 계승하는 ‘생의 철학’의 기수이며, S.A.키르케고르와 함께 실존주의자의 선구자로 지칭된다. 주저는 『반시대적 고찰』 『차라투스는 이렇게 말했다』 등이 있다.

## IV. 작품설명

【작품1】 대학교 1학년 때 그린 자화상이다. 자아에 대한 관심과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갖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며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다.

【작품2】 대학교 4학년 때 졸업을 앞두고 했던 작업이다. 그때 다른 것보다도 자신과 앞으로의 삶에 대하여 고민을 가졌던 시기였다. 바다라는 세계, 세상 속에서 자아 존재 의식에 표현이다.

【작품3】 동네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는 사람들을 그린 그림이다. 목욕탕 작업 중 처음작업에 해당된다. '아무것도 욕심내지 않고 단지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했던 작업이다. 목욕하는 사람들을 그리면서, 비슷하지만 저마다 다른 타일을 색칠하면서, 마음이 치유되고 평온해진다. 그 순간과 존재에 의미와 가치를 느꼈다.

【작품4】 대학교 3학년 때 실기실에서 작업을 하는 친구들과 본인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친구들의 모습을 한명씩 스케치하여 그려 넣는 과정에서 친구들이 보고 즐거워했던 기억이 있는 그림이다.

【작품5】 주묵의 사용은 먹에 대한 의문에서 사용해 보았다. 씻음의 의미중 하나이며 특별히 계획함 없이 드로잉한 작업이다.

【작품6】 뜰을 소중하게 가꾸듯이 본인의 삶도 아름답게 가꾸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던 작업이다. 아기자기하고 소박한 일상을 표현했다.

【작품7】 나의 내면의 자화상이라는 글씨를 반복해서 쓰면서 본인의 내면의 자화상에 대하여 생각해본 작업이다.

【작품8】 대학원 학기 중에 옥상 밑에 층에 작은 실기실에서 혼자서 작업하던 때 작업이다. 혼자서 작업을 하다가 눈을 감고 그 공간을 가만히 걸어 보았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계단을 오르고 옥상에 가서 그곳을 조심히 걸었는데 그

때의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도 따뜻하게 불어왔는데 무언가 큰소리에 놀라 눈을 떠보니 출입문은 바로 옆에 있었다. 세상을 조금 밖에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본인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느꼈고 그러한 상황을 눈을 감고 적어본 작업이다.

【작품9】 순간순간의 단상을 그때그때 가볍고 즉흥적으로 그렸다. 결과보다는 과정과 순간이 본래적인 것이며, 그림이라는 것, 행복이라는 것은 저것이 아닌 바로 옆에 있는 이것이라는 인식에서 연필이나 주먹으로 갱지에 편하게 그렸다. 주변에 있는 소소한 것이고 삶에서 오는 작은 감동이나 인간이기에 아름답고 측은한 모습들, 인간 속에서의 일어나고 있는 구조적상황이라기 보다는 인간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측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나 여러 가지 색깔에 내면 세계, 필연적인 어떤 것, 기본이 되는 것들에 관심이 있다.

【작품10】 목욕이라는 주제로 그린 그림이고, 한쪽 옆에 본인의 옷을 그려보았다. 특별한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냥 좋아하는 옷이다.

【작품11】 목욕이라는 주제의 작업이고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목욕탕이다.

【작품12】 여행을 가서 머물고 있었던 곳에 대한 그림이다. 친구들과 중국에 가서 철도 옆에 있는 숙소에 공간구조에 대한 기억, 그래서 밤에 퐁퐁거리는 소리와 함께 케텐 밖에 철도가 있었던 기억, 경주에 있는 호텔에 머물렀던 기억, 그곳에서 벽에 대한 기억, 어디인지 장소는 모르지만 화장실과 방에 공간에 대한 기억이 있는 엠티 등등의 다른 장소 다른 시기에 기억들을 모아서 그린 그림이다.

【작품13】 대학교 때 친구들과 요가를 함께하면 즐거워하던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과 친구에 모습을 보며 웃으면서 요가를 했던 기억이 있다. 요가를 하러 가는 짧은 밤길이 차갑고 유쾌했었다.

【작품14】 ‘어제는 조금 날았어’ 라고 시작되는 글씨를 적어본 작업이다 지붕 위를 날아가는 꿈을 꾸고 나서 그린 그림이다.

【작품15】 온천에 가서 목욕을 했던 구조에 공간이다. 씻는 동일한 의미의 그

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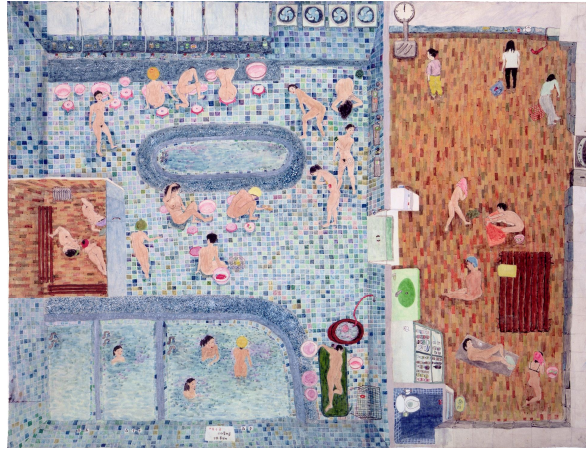
【작품16】 대학원을 수료하고 나서 혼자 집에서 그린 그림이다. 무의식적으로 그린 그림이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용기, 극복, 인내의 의미가 있던 그림이다. 그때의 불안하고 힘들었던 마음을 작은 타일을 그리면서 스스로를 이겨내려고 했다.



【작품 1】 자화상, 장지에 분채, 52cm×32cm, 2000



【작품 2】 파도야 너는 아느냐, 한지에 분채, 180cm×180cm,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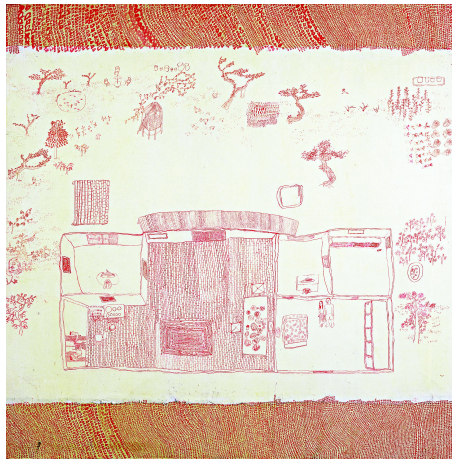
【작품 3】 여탕, 장지에 혼합재료, 130cm×162cm,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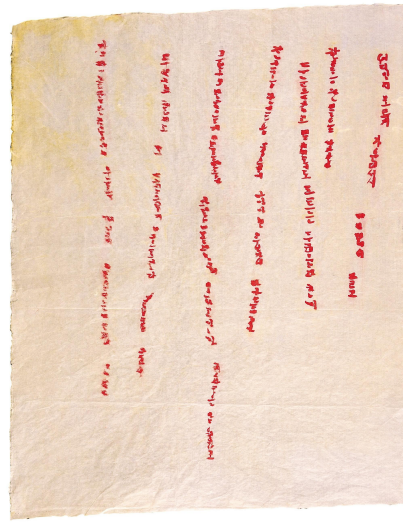
【작품 4】 3-b, 장지에 혼합재료, 130cm×162cm, 2002



【작품 5】 탕, 순지에 혼합재료, 180cm×180cm, 2004



【작품 6】 뜰, 순지에 혼합재료, 180cm×180cm,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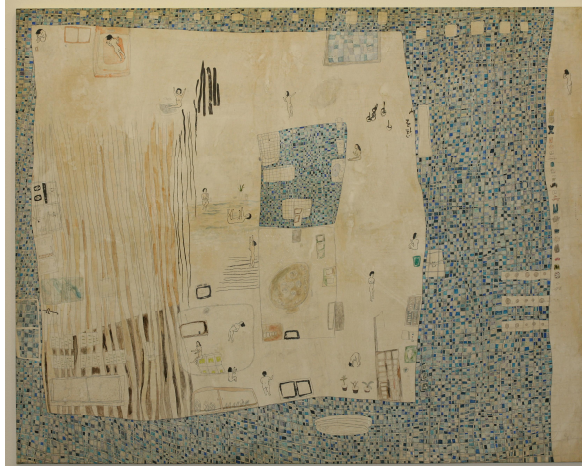


【작품7】 나의 나면의 자화상, 순지에 주먹, 162cm×130cm, 2006 (왼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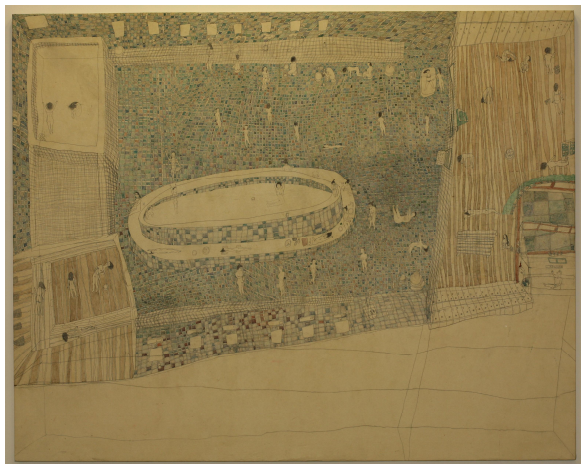
【작품8】 어디인지 모르게,,, 순지에 주먹, 162cm×130cm, 2006 (오른쪽)



【작품9】 드로잉, 갱지에 혼합재료, 27cm×21cm, 2007



【작품10】 탕, 장지에 혼합재료, 130cm×162cm,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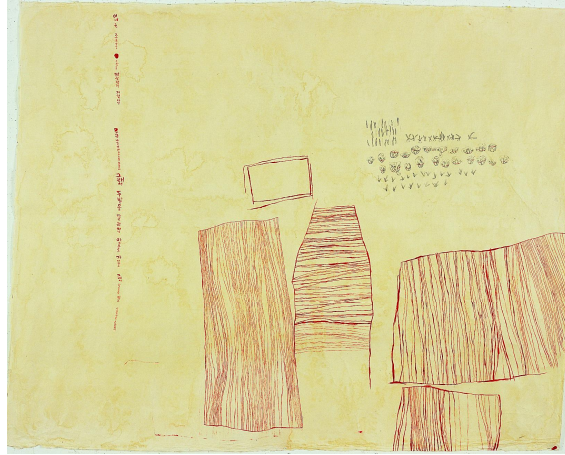
【작품11】 탕, 장지에 혼합재료, 130cm×162cm,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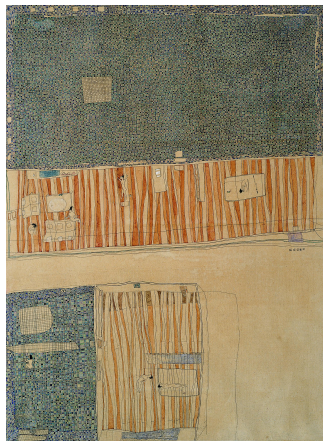
【작품12】 여인숙, 장지에 혼합재료, 130cm×162cm,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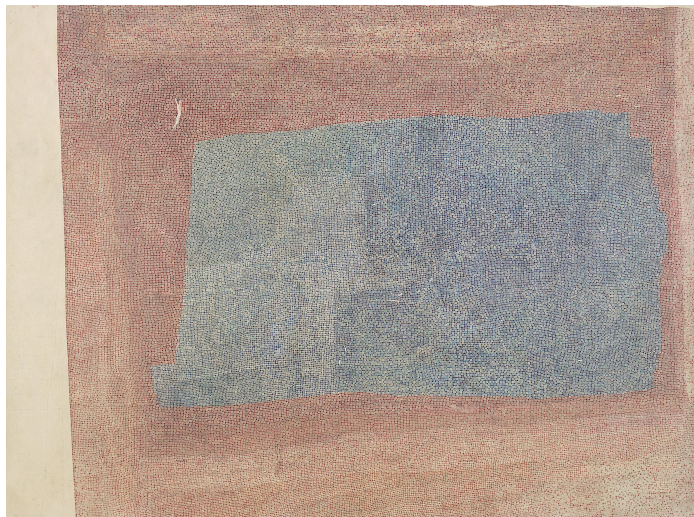
【작품13】 무용3, 장지에 혼합재료, 130cm×162cm, 2007



【작품14】어제는, 장지에 혼합재료, 130cm×162cm, 2007



【작품15】탕, 장지에 혼합재료, 110cm×90cm, 2007



【작품16】 탕, 장지에 혼합재료, 1230cm×90cm, 2007

## V. 결 론

‘왜’라는 질문을 하는 것은 어쩌면 대단한 의미와 가치의 기대감에서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까지 생각해본 본인의 작업은 내면에 천착하는 의문에 대한 고민으로써 넓은 범위의 안과 밖이 아닌 본인의 좁은 시각에서의 ‘안’과 ‘밖’이었다. 그림에 관한 본인의 내면에 무의식적 태도와 관점, 그리고 그것이 어떤 조형적 언어로 표현되어졌는지에 대한 나름으로 해석을 해 보았으나 이러한 해석이 얼마만큼 실제와 가까운지에 대한 대답은 명확하게 결론 지을 수 없다. 또한 이러한 나의 독백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호흡되어지는지,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에 대한 의문은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여 작업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한 해결은 결과를 위한 삶이나 그림을 위한 그림이 아닌 삶 자체에서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림 자체에서의 가치를 갖고자 하는 관점에 대하여 생각해본 계기를 시작으로 하여 앞으로 삶을 대하는 태도를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세계의 ‘일부로서’의 존재를 좀 더 인식해야 할 것이다. ‘사회’와 ‘나’, ‘집단’과 ‘단체’와의 인륜도 인간 실존에는 불가피, 불가결한 조건이다. 따라서 본인이 속하여져 있는 세계 속에 아름다운 인간들을 거리를 두고 바라보지만 말고 좀 더 뜨거운 가슴으로 다가가 뜨거운 작업이 되어지길 바란다. 아마도 좀 더 가볍게 발가벗고 좀 더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 또한 인간이기에 아름다운 인간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씻어내야 할 것들을 씻어내고 행복하고 아름답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단행본

김광하, 《노자 도덕경》 (서울: 너울북, 2005)

오윤희 역 《니체》 (서울: 문예출판사, 1966)

임혁재 《칸트의 철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6)

이종훈 역 《데카르트적 성찰》 (과주: 한길사, 2002)

정범모, 《인간의 자아실현》, (경기; 나남출판 1997)

정범모, 《미래의 선택》 (서울: 나남, 1972)

A. 카뮈, 방곤 역, 《이방인》 (서울:글방문고, 1992)

A. W. Maslow, *Toward a Psychology of Being* (N.Y.;Van Nostrand, 1962)

J. S. Mill, 이상구 역, 《자유론》 (서울: 삼성문화재단, 1972)

L. Stevenson, 임철규 역, 《인간의 본질에 관한 일곱가지 이론》 (서울: 종로  
서적, 1986)



# ABSTRACT

## **“Inside out, outside in”**

- Centering around My Work -

**Lee, youn - bin**  
**Dep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insight into the overlap between my art work and life. I often question myself why I am indulged in this work and how important my art work is in my life. This study aims to answer the questions to me.

This study speculates about the true meaning of arts as well as the nature of human being and life.

The idea is that my life is reflected on my art work and the nature of human life could be found in it. In order to find out the implicit meaning of the work, the aspects of real life are discussed since my work does not exist without my life. My life may be generalized as a typical human life. Our life is built up on our 'ideology', 'belief' or 'pride', stands for the existential solitude and also comes across 'non-beings' such as frustration, failure and death from time to time.

However, 'agony' is not one of the 'non-beings' because frustration

or failure is another expression of potential success. This is human figure and my figure that I have a recognition. Therefore, I have think about how form of unconsciousness expression and the intrinsic meaning of drawing. The overlap between the work and the real life is reviewed.

The meaning of life and my work is carefully speculated and the future direction of my life and work is identified.